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2. 12. 20(목) 14:00		
배포일	2012. 12. 20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5054)
담당부서	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	문의	우은숙 팀장(871-1222)

제 목: 가족 추모하며 서울대에 기부 실천한 형제 변호사

오용호 · 오양호 변호사, 교육자 아버지와 의사 형제 기리며 3억원 기부

-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,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유학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인 오용호(61, 변호사, 1973년 법대 졸업), 오양호(51,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, 1984년 법대 졸업) 두 형제가 모교인 서울대에 3억원을 기부했다.
- 12월 20일(목) 오후 2시 서울대 총장실에서 오연천 총장과 오용호 · 오양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부친인 故오영일(前전북교육청 학무국 장학관) 선생과 형제 故오봉호 동문(1982년 서울대 의대 졸업)을 추모하며 희망장학기금을 쾌척했다.
- 형제변호사가 조성한 ‘오영일(吳榮一) · 오봉호(吳俸鎬) 희망장학기금’을 故오봉호 동문의 아들이 재학중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와 의과대학,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.
- 오용호 변호사는 “5남매 중 4남매를 서울대에 합격시킨 부친의 생전 가르침과 정신과 전문의로 군의관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동생을 추모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”고 취지를 전했다. 또 서울대 가정대학을 졸업한 오변호사의 여동생 오명숙 동문

역시 “정신과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우리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동생이 있었다면 더 많은 선행을 베푸는데 앞장섰을 것”이라며 형제들의 장학금 기부를 반겼다.

-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와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유학한 오용호 변호사는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.
- 오양호 변호사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유학했다.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, CDMA 관련 국제중재, 한국통신 민영화,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 중요 사안들을 맡으며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.